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온 정부



광주지방기상청

보도자료 Press Release

배포일시	2019. 3. 22.(금) 11:00 (총 9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기후서비스과	담당자	과 장 김 재 영 사무관 김 연 희
		전화번호	062-720-0669

## 광주·전남 3개월 전망(2019년 4월~6월)

[기 온]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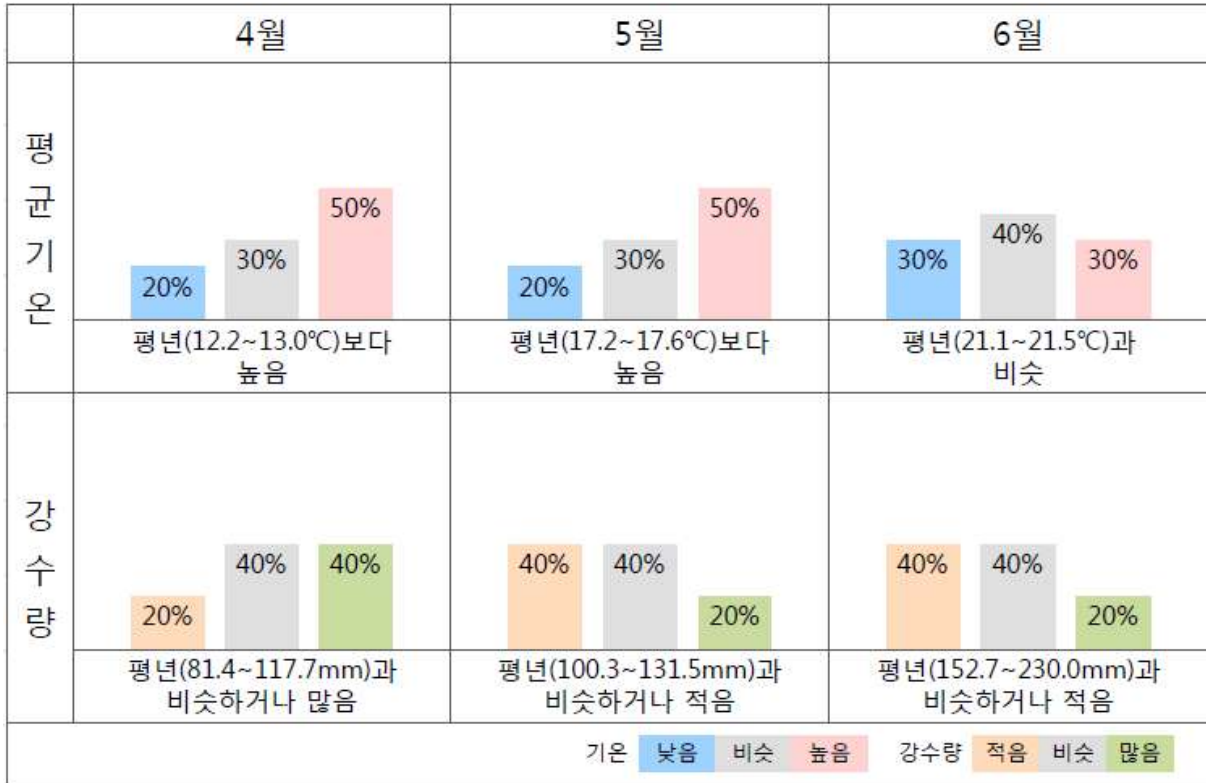
[강수량] 4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으나,

5월과 6월에는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 (4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습니다. 일시적인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을 때가 있겠습니다. (월평균기온) 평년(12.2~13.0℃)보다 높겠습니다. (월강수량) 평년(81.4~117.7mm)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 (5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습니다. (월평균기온) 평년(17.2~17.6℃)보다 높겠습니다. (월강수량) 평년(100.3~131.5mm)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 (6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은 날이 많겠으나, 기온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하순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월평균기온) 평년(21.1~21.5℃)과 비슷하겠습니다. (월강수량) 평년(152.7~230.0mm)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 (엘니뇨·라니냐) 최근(3월 10일~16일) 열대 태평양 엘니뇨·라니냐 감시 구역의 해수면온도는 평년보다 1.0℃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예보기간 동안 약한 엘니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붙임 1</b>	<b>광주·전남 3개월 전망 요약</b>
-------------	------------------------

**[광주·전남 3개월 전망(2019년 4월 ~ 6월) 요약]**



※ 기온, 강수량은 광주·전남 7개(광주, 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 지점의 평균  
 ※ 위 표의 확률 해석은 아래와 같으며, 평년기간은 1981~2010년입니다.

확률(낮음(적음) : 비슷 : 높음(많음))	해 설
높음(많음) 확률이 50%이상 (20:40:40)	평년보다 높음(많음)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음(많음)
비슷 확률이 50%이상 (40:30:30) (30:40:30) (30:30:40)	평년과 비슷
(40:40:20)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음(적음)
낮음(적음) 확률이 50%이상	평년보다 낮음(적음)

**【 알 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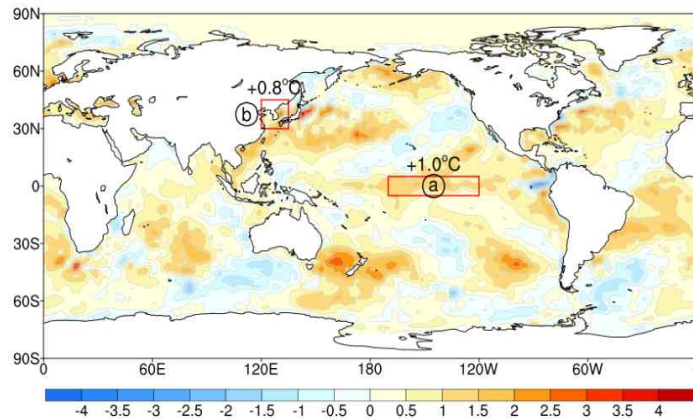
- 3개월 전망은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http://www.weather.go.kr)) → 특보·예보 → 3개월 전망”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3개월 전망은 2019년 4월 23일 오전 11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붙임 2

## 해수면온도 현황과 전망

### ○ 해수면온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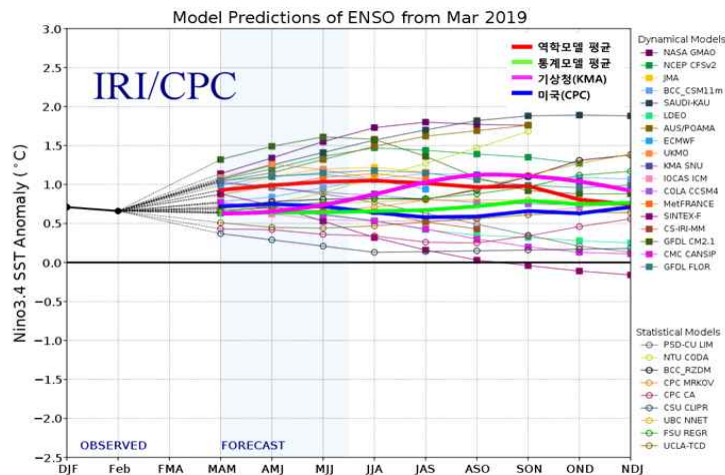
- 최근(3월 10일~16일) 열대 태평양의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 Nino3.4, 5°S~5°N, 170°W~120°W)의 해수면온도는 28.1°C로 평년보다 1.0°C 높았으며, 우리나라 주변(㉡: 30°N~45°N, 120°E~135°E)의 해수면온도는 10.9°C로 평년보다 0.8°C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음.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최근(3.10.~16.) 전지구 해수면온도 편차 분포도(OISST)

### ○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 전망

- 엘니뇨는 2018년 9월부터 시작(2019년 3월 선언)되었으며, 이번 예보기간 동안 약한 엘니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세계 각국의 엘니뇨·라니냐 예측 결과(출처: IRI)

※ 엘니뇨(라니냐) 정의: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열대 태평양 Niño3.4 지역: 5°S~5°N, 170°W~120°W)의 3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 편차가 +0.5°C 이상(-0.5°C 이하)으로 5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라니냐)의 시작으로 봄(2016.12.23.부터 적용).

### 붙임 3

### 온난화 경향 및 주요 기후감시요소 분석

#### ○ 온난화 경향

- 4월, 5월, 6월 모두 기온의 상승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5월과 6월의 최근 기온상승 경향이 뚜렷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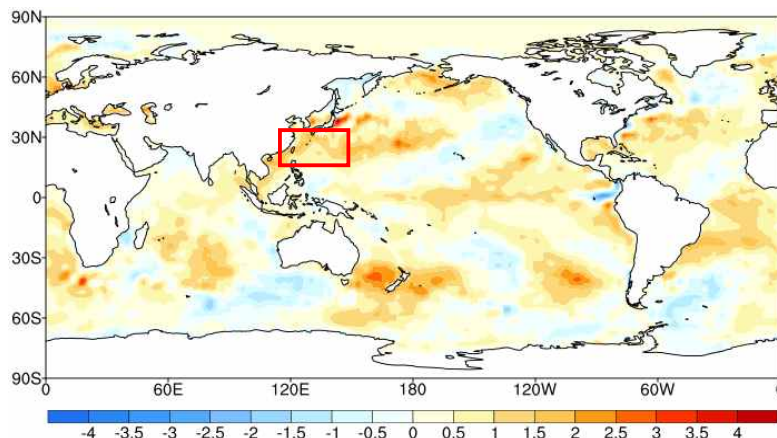
※ 분석기간: 1973년~2018년



광주·전남 월 평균기온 경향성(Trend) 분석

#### ○ 최근 해수면온도 편차

- 열대태평양에 약한 엘니뇨가 지속되고 있고, 북서태평양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 북서태평양의 해수면온도가 높으면 남쪽으로부터 난기 유입에 의해 한반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수 있음.



최근(3.10.~3.16.) 전지구 및 북서태평양(빨간색 상자)의 해수면온도 편차 분포(OISSTv2)

※ 빨강/파랑 채색: 평년보다 높/낮은 온도

## ○ 1월

-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2.3℃로 평년(1.5℃)보다 **높았으며**, **강수량**은 13.8mm로 평년(19.4~36.4mm)보다 **적었음**.
- **[기온]** 상층 대기의 동서흐름이 원활한 가운데, 상층 기압골이 시베리아 북부와 캄차카 반도 부근에 위치하여 북쪽 찬 공기가 주로 우리나라 북쪽으로 통과하고, 우리나라 주변에는 약한 상층 기압능이 위치함. 이로 인해,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번갈아 받아 기온변화가 다소 컸으나, 찬 공기의 세력이 평년보다 약해 기온이 높은 날이 많았음.
- **[강수량]** 약 10km 상공의 제트기류가 시베리아와 북한 부근에 형성되어 북쪽 찬 공기의 남하를 저지하면서 전반적으로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평년보다 약했음. 이로 인해, 서해상에서 해기차(해수면과 대기의 온도차)에 의한 눈구름대의 생성이 약했고, 지상 저기압도 강하게 발달하지 못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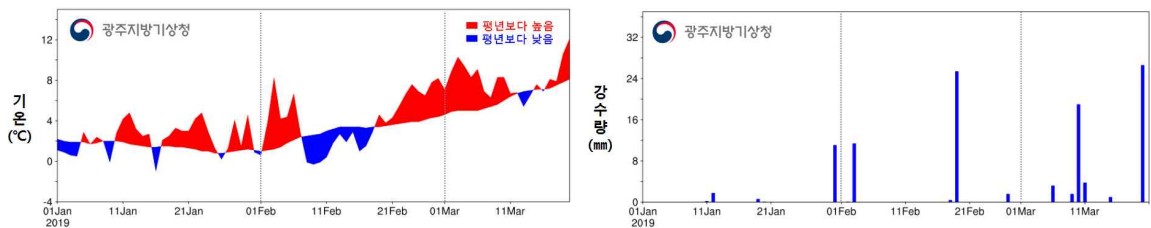
## ○ 2월

-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3.8℃로 평년(3.0℃)보다 **높았으며**, **강수량**은 38.9mm로 평년(30.2~50.2mm)과 **비슷하였음**.
- **[기온]** 대기상층 기압계의 동서흐름이 대체로 원활한 가운데, 초반(1~6일)에는 우리나라 남동쪽에 평년보다 따뜻한 공기가 위치하면서 북쪽 찬 공기의 남하가 저지되었고, 후반(21~28일)에는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평년보다 약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상층 기압능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이 평년보다 매우 높았음. 반면에 중반에는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낮았음.
- **[강수량]** 주기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았으며, 두 차례 많은 비가 내려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 특히, 2~3일과 18~19일에는 우리나라 남쪽의 대만 부근 해상에서 평년보다 해수면온도가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가는 이동성 고기압과 그 후면의 저기압 사이에 만들어진 강풍대를 따라 따뜻한 수증기가 다량 유입 되면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음.

○ 2019년 3월(1일~20일)

- [광주·전남 기온, 8.1℃] 이동성 고기압과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다소 컸으나, 2월 후반 중국 북동부에 형성된 상층 기압능의 영향이 3월 10일까지 이어지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매우 높았음. 특히, 3~6일과 19~20일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풍과 남풍기류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던 반면에, 13~14일에는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졌음.
  - [광주·전남 강수량, 55.4mm] 기압골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비가 자주 내렸음. 6일과 9~10일은 남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고, 11일과 20일에는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음. 특히, 20일에는 중국 남부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강한 남서풍을 따라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어,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한편, 15일에는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 또는 눈이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번개와 함께 우박이 내렸음.
- ※ 3월 평년 비슷범위: 기온 6.6~7.4℃, 강수량 65.0~80.5mm

○ (최근 3개월, 2019.1.1.~3.20.)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4.3℃로 평년(3.2℃)보다 높았고, 강수량은 108.1mm로 평년(103.7~145.6mm)과 비슷했음.



최근 3개월 광주·전남 평균기온(왼쪽)과 강수량(오른쪽)의 일변화(2019.1.1.~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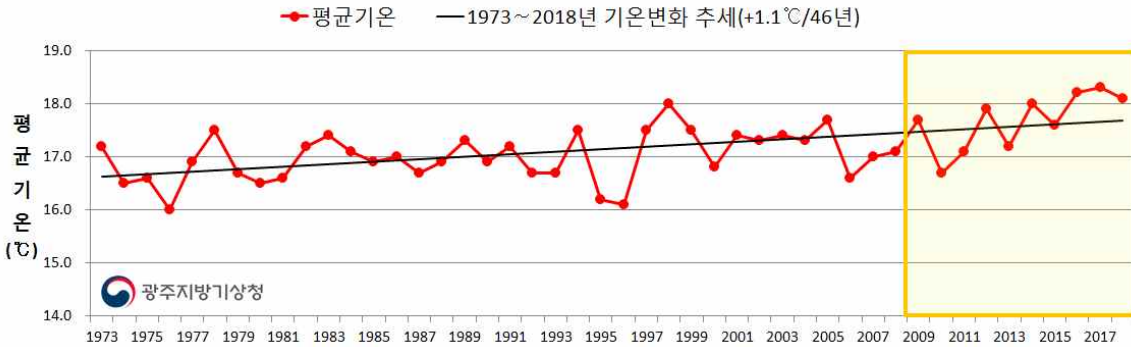


## 붙임 5

## 최근 10년간의 기후 특성(4월~6월)

### ○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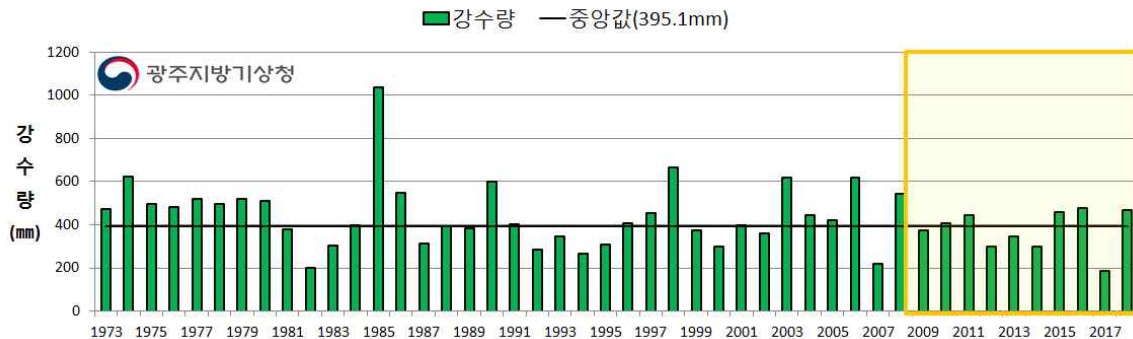
- 최근 10년(2009년~2018년)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17.7°C로 평년(17.1°C)보다 0.6°C 높았음.



연도별(1973년~2018년) 광주·전남 평균기온(4월~6월)

### ○ 강수량

- 최근 10년(2009년~2018년) 광주·전남 강수량은 376.0mm로 평년(369.7~412.3mm)과 비슷했음.



연도별(1973년~2018년) 광주·전남 강수량(4월~6월)

### ○ 광주·전남 월별 최근 10년 평균 기후값

기후 요소	단위	4월	5월	6월
평균기온(평년편차)	°C	12.8 (+0.2)	18.2 (+0.8)	22.0 (+0.7)
평균 최고 / 최저 기온	°C	18.5 / 7.7	23.8 / 13.2	26.4 / 18.5
강수량 / 강수일수	mm / 일	136.4 / 9.9	111.2 / 8.8	128.4 / 9.6
일조시간	시간	214.2	240.2	177.5
일교차 10°C 이상 일수	일	15.9	17.0	8.4
황사일수	일	0.7	1.6	0.0

※ 기온·강수량은 7개(광주, 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 일조시간은 4개(광주, 목포, 여수, 완도), 황사일수는 3개(광주, 목포, 여수) 지점의 평균

※ 최근 10년 기간: 2009년~2018년 / 평년기간: 1981년~2010년

**붙임 6****최근 10년간 특이기상 및 영향(4월~6월)**○ **고온 현상**

## - (2018년 4월 19일~21일)

- 우리나라 남쪽에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그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기류가 유입되고, 낮 동안에 강한 일사까지 더해져 기온이 크게 상승하였음.

일최고기온(°C) [4월 극값]: 20일 1위 진도(침찰산) 26.5, 2위 광주 30.2

## - (2017년 5월)

- 우리나라 남쪽 해상으로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었으며, 맑고 건조한 가운데 낮 동안 강한 일사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상승하였음. 광주·전남 평균기온,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각각 최고 1위와 2위를 기록하였음.

월평균기온(°C): 1위 18.8(편차 +1.4) / 월평균 최고기온(°C): 2위 24.9(편차 +2.2), [1위 1978년 25.4(편차 +2.7)]

일최고기온(°C) [5월 극값 1위]: 30일 완도 31.9, 진도(침찰산) 29.7

일최저기온(°C) [5월 극값 1위]: 30일 여수 19.7, 31일 완도 19.6

## - (2017년 4월)

- 이동성 고기압과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어 광주·전남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각각 최고 2위, 1위, 3위를 기록하였음.

월평균기온(°C): 2위 14.3(편차 +1.7), [1위 1998년 15.1(편차 +2.5)] / 월평균 최고기온(°C): 1위 20.4(편차 +2.0)

월평균 최저기온(°C): 3위 8.8(편차 +1.5), [1위 1998년 11.1(편차 +3.8)]

일최고기온(°C) [4월 극값]: 16일 1위 광주 30.4 30일 2위 장흥 28.2

## - (2016년 4월)

-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계열의 따뜻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광주·전남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각각 최고 3위, 5위, 2위를 기록하였음.

월평균기온(°C): 3위 14.2(편차 +1.6), [1위 1998년 15.1(편차 +2.5)]

월평균 최고기온(°C): 5위 19.7(편차 +1.3), [1위 2017년 20.4(편차 +2.0)]

월평균 최저기온(°C): 2위 9.5(편차 +2.2), [1위 1998년 11.1(편차 +3.8)]

○ **저온 현상**

## - (2018년 4월 6일~8일)

- 척치 해 부근에 상층 기압능이 위치하면서 우리나라 부근으로 상층 기압골이 발달하였고, 후면인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음.

일평균기온(°C) [4월 극값]: 7일 5위 진도(침찰산) 2.7 / 일최저기온(°C) [4월 극값]: 7일 3위 흑산도 2.7



－ (2014년 5월 3일~9일)

- 캄차카반도 부근의 발달한 상층 기압능 영향으로 대기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상층 한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고, 6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음.

일평균기온(°C) [5월 극값]: 5일 1위 진도(침찰산) 9.3, 4위 영광군 11.3, 5위 해남 11.0

－ (2013년 4월)

- 상순 후반부터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에 자주 유입되어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었음. 광주·전남 평균기온과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낮았고, 평균 최저기온은 두 번째로 낮았음.

월평균기온(°C): 3위 2013년 11.2(편차 -1.4), [1위 1996년 10.2(편차 -2.4)]

월평균 최고기온(°C): 3위 2013년 16.8(편차 -1.6), [1위 2010년 15.7(편차 -2.7)]

월평균 최저기온(°C): 2위 2013년 5.7(편차 -1.6), [1위 1996년 4.6(편차 -2.7)]

○ 많은 비

－ (2015년 4월)

- 우리나라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남해안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광주·전남 강수일수가 1973년 이래 가장 많았음.

강수일수(일): 1위 16.6(편차 +8.0)

○ 황사

－ (2016년 4월)

- 몽골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22일~25일에 전국적으로 황사가 관측되었음.

최고농도(시간평균,  $\mu\text{g}/\text{m}^3$ ): 24일 흑산도 441

○ 건조 및 가뭄

－ (2017년 5월)

-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광주·전남 강수량이 28.0mm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적었으며, 강수일수도 5.6일로 최소 2위를 기록하였음.

강수일수(일): 2위 5.6(편차 -3.7), [1위 1978년 2.3일(편차 -7.0)]

○ 태풍

－ (2011년 6월 25~26일)

- 제5호 태풍 '메아리'가 서해상으로 북상하여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음.

최대순간풍속(㎍) [6월 극값]: 1위 26일 흑산도 34.8, 진도(침찰산) 29.3, 영광군 21.3, 고흥 21.5, 2위 장흥 23.4